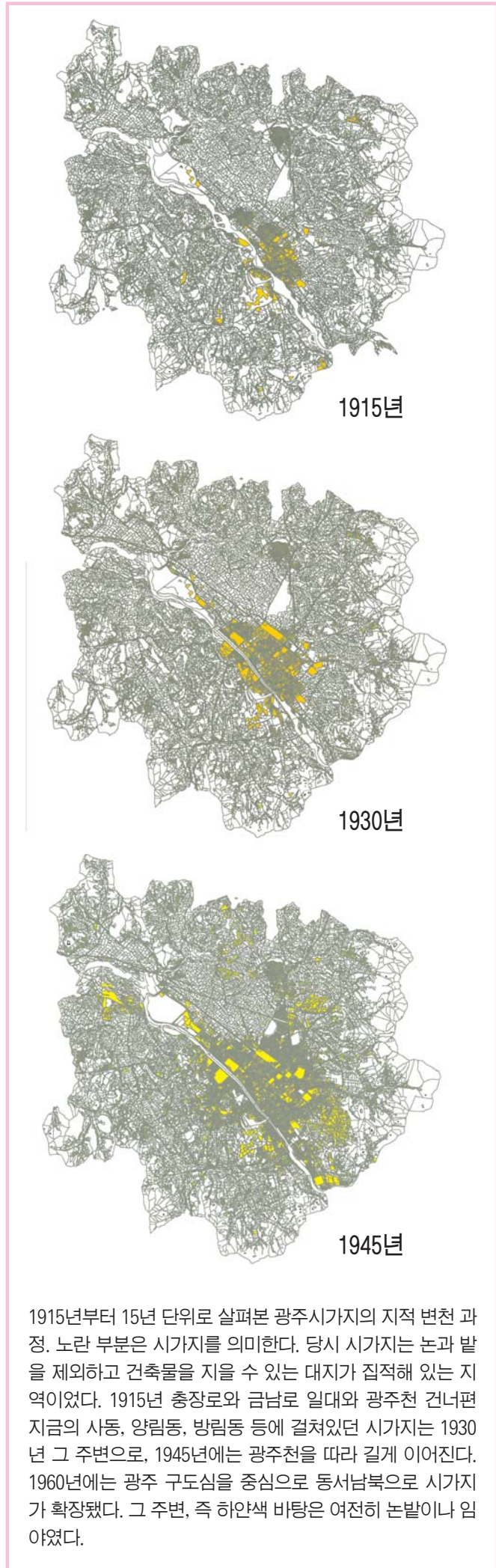


# 1934년 첫 도시계획...공장·은행 진출로 상거래 본격화



1915년부터 15년 단위로 살펴본 광주시가지의 지적 변천 과정. 노란 부분은 시가지지를 의미한다. 당시 시가지는 논과 밭을 제외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적적해 있는 지역이었다. 1915년 총장로와 금남로 일대와 광주천 건너편 지금의 사동, 양림동, 방림동 등에 걸쳐있던 시가지는 1930년 그 주변으로, 1945년에는 광주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다. 1960년에는 광주 구도심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시가지가 확장됐다. 그 주변, 즉 하안색 바탕은 여전히 논밭이나 임야였다.

##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 4. 근대화 막바지에 접어든 광주

조선총독부의 기록에서 광주는 1897년 목포항의 개항과 함께 일본인의 대거 진출, 1900~1920년대 광주읍성이 사라진 후 도로 정비, 수도 및 하수 시설, 광주천 정비, 공원 설치 등이 꾸준히 추진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인의 침탈을 경계하면서 '우리 것'을 지키고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했던 지역민들의 노력도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으로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방면을 장악했던 일제의 도시 근대화, 즉 광주 개조는 결국 일본인들에게 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25년 광주 시가의 미화·정화를 위해 일제는 하수도 설치(예산 12만원), 하천 개수(16만원), 시장 정비(5만원) 등 3대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수도와 하수도는 일본인들의 거주지역이었던 지금의 옛 전남도청 주변과 예술의 거리, 총장로 등에 한정됐다. 구불구불했던 광주천의 주변은 장마 시 범람하기 일수였고, 광주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이에 큰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구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광주천 주변은 도심과 인접해 있어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발 압력을 받았던 곳이었다.

우선 일제는 지금의 사직공원 앞 금교 부근부터 양동시장 부근까지 광주천의 폭을 좁혀 직선화함과 동시에 주변에 도로를 놓았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부지에 공장, 운동장, 주거지, 그리고 긴 역사를 안고 있던 큰 장과 작은 장을 합친 시장 등이 자리하게 됐다. 광주의 첫 시가지 공공개발사업인 셈이다.

이 시장을 당시 사정, 지금의 사동에 있었다고 해서 '사정시장'이라고 불렀다. 사정시장 분양 비리도 있었다. 1928년 당시 광주면이 지역민은 물론 부면장 등 한국인 공무원조차 모르게 일본 개발업체에 '목종은 자리'를 특혜 분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 대화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일본인 면장이 해촉되기도 했다.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일제는 1928년 1/600 시가지 개축도를 만들기 시작한다. 시가지 개축에 들어가기 직전 광주면의 토지대장등록 지번 수는 5130건이었다. 광주면이 5130개의 필지로 나뉘어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1934년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을 위한 '조선시가지계획령' 실시의 준비 단계로, 광주는 1939년 10월31일 나진, 경성, 청진, 성진, 목포, 대구 등에 이어 20번째로, 30년 미래를 예측하며 계획적인 가로 및 구획 정리에 나선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1967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 면적은 광주부와 서방·효지·극락면 일부를 포함, 모두 3490만5000㎡였다. 일제는 1967년 광주의 인구를 13만5383명으로 추정, 광주에 인구 15만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로 및 공원, 주거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이상이 크게 빛나갈 만큼 광주는 성장했고, 실제 1965년 광주의 인구는 58만8662명에 달했다. 결국 해방 이후 상당기간 유지됐던 이 계획은 '수도 대비 공급 부족' 속에 난개발을 초래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도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광주의 성장은 곧 행정구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1931년 4월 1일 읍면제 실시에 따라 제주, 여수와 함께 광주읍이 됐으며, 다시 1935년 10월1일 광주부로 승격하게 된다. 광주부로 승격하기 바로 전인 1934년 광주군의 인구는 13만9380명(한국인 12만9879명)이었고, 시가지인 광주읍에는 7919호 3만8008명(한국인 3만747명 일본인 7101명 외국인 160명)이, 부도심에 해당하는 송정리에는 1024호 5054명(한국인 4137 일본인 879 외국인 33)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



1949년 8월13일 광산군이 나주 삼도·본량·평동면을 편입했다. 비로소 광주시와 광산군, 즉 지금의 광주광역시 구역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1988년 광주직할시가 송정읍과 광산군을 편입하면서 광주는 하나가 됐다.

## 광주부 승격후 시가지 41곳 2차 미화사업

경제규모 생산 297만원·거래 1904만원 등

## 해방후 일본인 재산 처리과정서 마찰 극심

## 인구 예측 빚나간개발 등 사회문제 부상

광주부가 되기 바로 직전 서방·지하·효천·극락면의 일부를 편입하면서 시가지는 41개 정으로 더 넓어졌다.

또 광주읍이 광주부가 되면서 광주군은 광산군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해방 후 상당기간 계속됐으며 1988년 광주직할시 행정구역에 송정시 및 광산군을 편입하면서 53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된다.

1935년 초 당시 광주읍은 조선총독부에 부 승격을 앞두고 1934년 말 기준으로 읍 전반에 걸쳐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1930년대 이르러 광주는 호남선과 송정~광주~담양선, 광주~여수선의 잇따른 개통, 도시제사·약림방직·종연방직 등 광주 3대 공장의 비약적인 발전, 호남은행 등 금융기관의 잇따른 진출 및 상거래 급증 등으로 호남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

산액 규모는 297만3590원, 거래액 규모는 1904만3507원이었으며, 투자액 500원 이상 상점수는 206곳이나 됐다.

광주부는 이후 도로 추가 개설 및 광주천 정비, 경양방죽 및 광주천 주변 매립을 통한 주거지 정비, 하수 및 수도 확장 등 '제2기 도시적 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정시장을 천정, 지금의 양동으로 이전시키고, 지금의 학동에 도시 빈민을 위한 경쟁지구를 조성했으며, 군사적 요지였던 점을 감안해 비행장이 설치되기도 했다.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됐고 1947년 8월15일 전라남도령 제7호로 명칭이 금남로, 본정이 총장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1948년 8월15일에는 600호를 기준으로 41개 동을 36개 동으로 개칭했다. 또 1949년에는 일제 명칭인 광주부를 버리고 광주시로 거듭났다. 일본인들이 남긴 토지나 건물 등 재산 처리 과정의 분쟁과 마찰, 노점상 및 노숙자의 증가 속 도시 난개발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1949년 8월13일(대통령령 제161호) 광주시에 있었던 광산군청을 송정읍으로 이전하는 한편 송정읍의 인접면인 나주군 삼도·본량·평동면을 광산군에 편입했다. 광주시 인접면인 서방·석곡·극락·효지면의 광주시로의 병합은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청·전라남도청의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

##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시력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를 튼튼케 하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연초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1204-종-4738호